

DESIGN

Vol.425 2013/11 www.monthlydesign.co.kr

Report 2013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리뷰 Focus 불혹 맞은 국내 최초의 아이덴티티 전문 회사, CDR 어소시에이츠
Inspiration 해외 디자이너의 한국 기념 사진전 Designer 장인 정신으로 한글을 새기는 활자 디자이너, 이용제

425



Special Feature

디자인을 캐스팅한 박스 오피스

Casting Design at the Box Offic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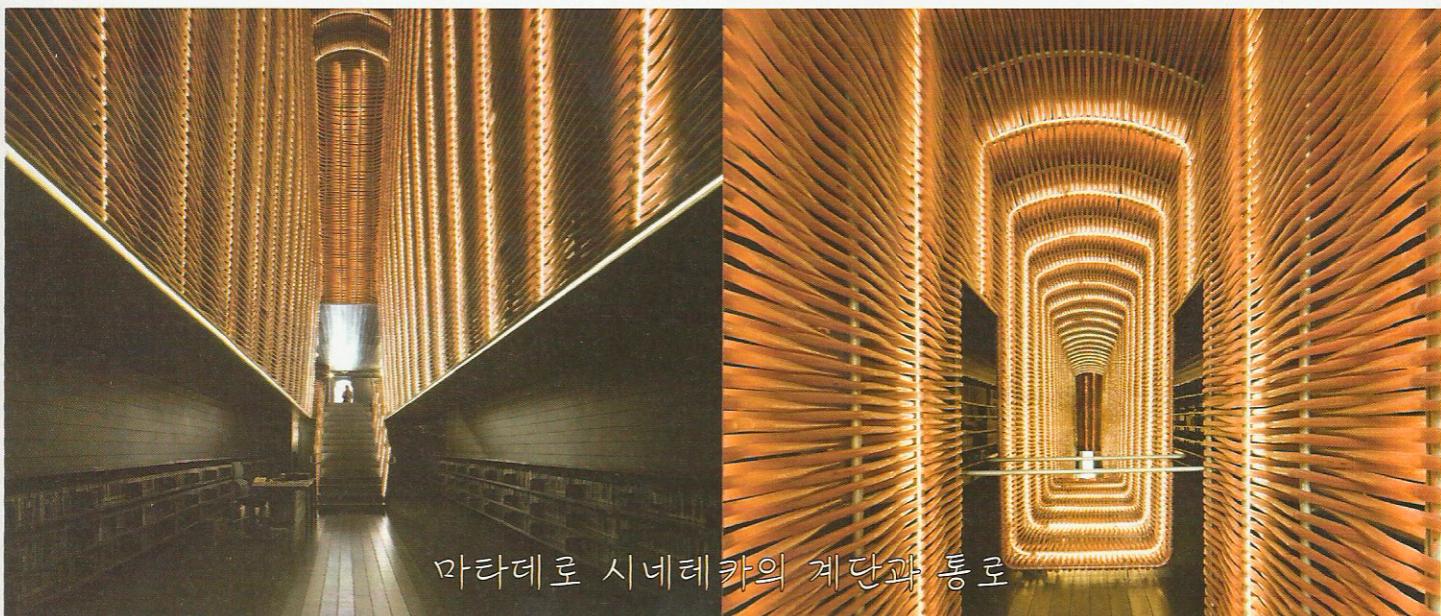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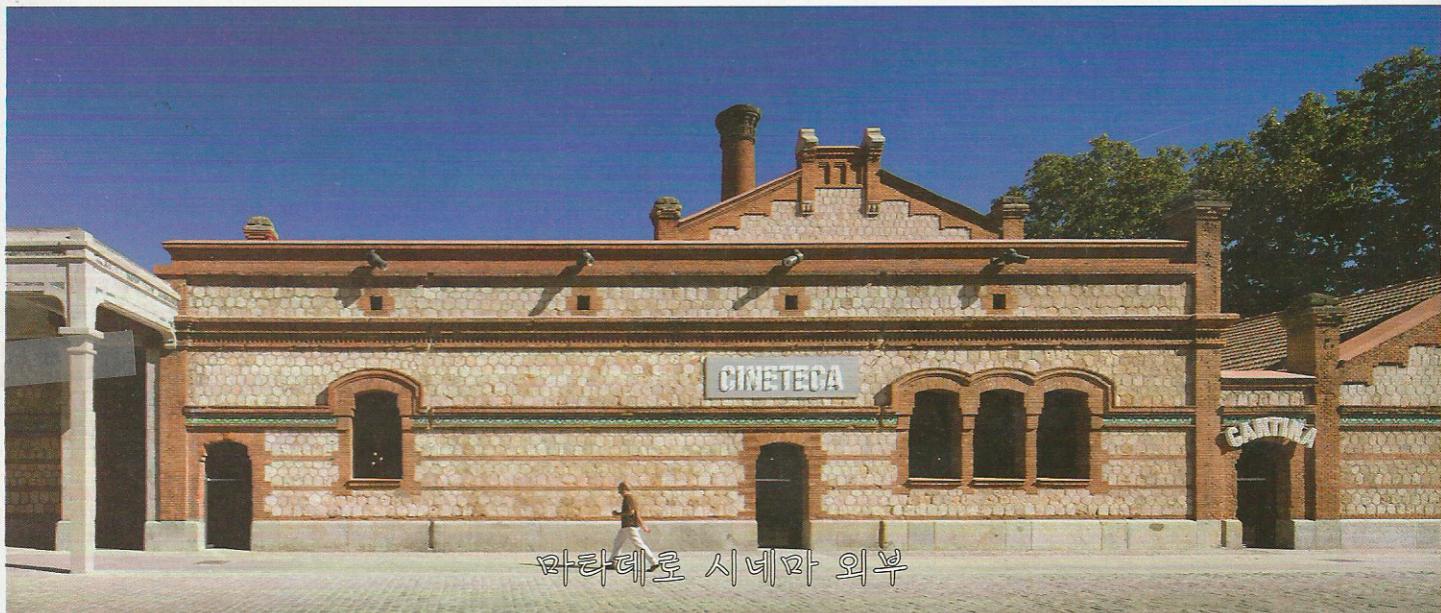
Vol.425 2013/11 www.monthlydesign.co.kr

Editor's Letter	
18	It is more difficult not to change
Opinion	
20	Sharing Space, Mimesis Art Museum
Visual Essay	
22	We love you, customers
Star Review	
24	Yahoo Renewal, Sony Cybershot QX Series,
Interview	
26	The most british, The most modern, Jonathan Barnbrook
News	
Zoom in	
60	Changing the World With Light Utopia, Vitra Light Museum, <Lightopia>
62	Pushing Off Giants, Apple & Google Overtake Coca-Cola, Interbrand 'Best Global Brands 2013'
64	From a Slogan, Prudential Life Insurance, 'Plan Your Story'
67	Revitalizing Locality with Design, 2013 Korean Public Design Awards
Design Promotion	
68	Paris Baguette French Love Day Figure 'Lovien'
Special feature	
86	Casting Design at the Box Office
88	Evolving Dreams, Evolving Design, the Evolving Theater
90	Reborn as a Cultural Platform, CGV CulturePlex
98	Asia's Korean Multiplex Theater. Lotte Cinema Ha Dong, Tianjin
100	Generation Surpassing Luxury Mutliplex, Multikino Golden Terraces
104	The Store contains Italian Movie Spirit, Louis Vuitton Roma Etoile

108	Fantasy Into Reality. Secret Cinema
110	Locals Save a Theater, Weltspiegel
116	Madrid's New Attraction, Matadero Cineteca
120	Military Base as Movie Theater, Cine 32
124	Theater in a Town Square, Lons-le-Saunier 4C
128	Talking through the Design, Rather than the Screen
Inspiration	
130	Memorable Photographs of Seoul From Overseas Designers
Report	
142	Design in Everywhere, London Design Festival 2013
Project	
162	Origins and Spirit of a Brand on a Facade. Mamonde Flagship Store
Focus	
166	Korea's First Identity Company, CDR Associates's the 40th Anniversary
171	Baby Steps Toward Design Hanllryu, Design Korea 2013
172	Design is Life and the Future, Herald Design Forum 2013
Designer	
176	Craftsman, Korean Type Designer, Yongje LEE
By its Cover	
184	Surveys, Mediocre Taste, Predictable Conclusions
Popular Culture and Design	
186	Japan Design's 'what' Tendency and Korea in the 2000s Part 1.
Design Law	
188	Excessive Design Exposure is Deadly?
Book Review	
190	<Culture in a Liquid Modern World>
Information	
191	

마드리드의 새로운 명물이 된 도살장

마타데로 시네테카



오픈 2011년

클라이언트 마드리드 시청

디자이너 주르티차가+과드라 살세도 건축 스튜디오

주소 Matadero de Legazpi, Madrid, Spain

스크린 수 2개

웹사이트 www.mataderomadrid.org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영화관을 '집단적인 꿈의 집'이라고 불렀다. 사진이나 영화 같은 복제 예술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을 읽어내려고 했던 그의 관점은 결국 지나친 낙관주의로 판명 났지만 영화관이 꿈이 서린 장소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마타데로 시네테카(Matadero Cineteca)'라는 이름의 공공 시네마 센터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마드리드 시민들의 집단적 꿈과 건축가 개인의 기억을 촘촘히 적조해낸 흥미로운 영화관이다. 마타데로 시네테카 건물은 원래 오래된 도살장이었다. 고기 수프와 스튜 등 육식을 선호하는 마드리드 주민들에게 이곳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축 시설이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점차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1996년 폐쇄를 결정했고 이후 10여 년 동안 이곳은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됐다. 하지만 최근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도시 재개발 붐이 일면서 이 거대한 시설물을 지역민을 위한 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마타데로 시네테카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로 완성된 공공 시네마 센터로 2개의 상영관과 영화 사료 보관소, 영상 스튜디오, 구내식당과 야외 테라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공간 디자인은 스페인의 부부 건축가 호세마리아 추르티차가(Josemaria Churtichaga)와 카예타나 데 라 콰드라 살塞도(Cayetana de la Quadra Salcedo)가 맡았다. 이들은 과거 도살장의 자취를 깨끗이 없애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옛 모습과 새로운 기능이 자연스레 공존하도록 디자인했다. 두 사람은 건물 내·외부의 깨지고 균열이 간 벽돌과 석회 모르타르를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했으며 도살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보일러 역시 철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옛것을 무방비로 방치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건물의 내구성을 더하는 보강재에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짙은 잿빛의 소나무 패널이다. 벽에 보강하기 위해 사용한 이 나무 패널은 오래된 벽돌과 대조를 이루며 색다른 분위기를 낸다. 건축가 개인의 기억을 반영한 통로와 계단은 이 영화관 디자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두 건축가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법 같은 역광과 극적인 명암 대비, 유년기 시절 바구니 제작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그리고 기하학적 무한성에서 영감을 받아 통로와 계단 난간 등을 디자인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렌지색 정원용 호스를 니트를 짜듯이 엮고 호스 안에는 점멸하는 LED 조명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만든 통로와 계단은 그 자체로 구조물이자 조명이요, 공간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되었다. 버려진 도살장에 불과했던 건물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마드리드 주민들의 염원과 오래된 기억을 끌어낸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꿈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타데로 시네테카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주인인 마타데로 복합 문화 단지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 중이다. 글: 최명환 기자

마타데로 시네마 외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외부.

마타데로 시네테카의 계단과 통로
영화 사료 보관소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의 정원용
호스 재질과 구부려진 스틸 투브는 어두운
나무 패널과 어우러져 마치 빛의 덩어리가
공간을 부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배치한 통로의 LED조명은 빛이 벽면
안에서 춤추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상영관 내부

상영관에도 역시 정원용 호스를 꼬아 만든 방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만든 상영관 내부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방음 효과까지 있다.

영화 사료 보관소 내부

낡은 벽돌 위에 갯빛 소나무 패널을 보강했다. 중앙에 자리한 기둥은 기존 건물의 약한 기반을 보완하는 동시에 조명 역할도 한다.



영화 사료 보관소 내부



상영관 내부

Interview 호세마리아 추르티치가,
카에타나 데 라 콰드라 살세도 마타데로 시네마
센터 공간 디자인

“영화적 수사를 공간 안에 녹여
비현실적인 공간을 창조했다.”



과거 도살장이었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의 흔적이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나? 물론이다. 과거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무언가가 아니다. 과거는 거대하게 축적된 하나님의 지식 덩어리다. 우리가 옛 모습을 남겨둔 것은 단순히 환경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 마르지 않는

(과거라는 이름의) 웅장한 삼은 우리를
지적·문화적 차원에서 자극시켰다.
짙은 색상의 나무 패널을 이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진하고 어두운 질감의 나무 패널을 바닥과 천장, 벽면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과거와 새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뿐 아니라 이 소재는 정원용 호스로 만든 바구니(모양의 통로와 계단)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정원용 호스를 엮어 만든 벽면과 계단 난간이 인상적이다.

나는 영화를 하나의 비주얼 언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빛나는 표면과 명암의 대조 같은 영화적 수사를 공간 안에 녹이려고 했다. 나(추르티치카)는 어릴 때부터 바구니 제작 방식에 깊이 매혹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 매혹적이고 동시에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하고자 했다. 바구니 제작 방식으로 디자인한 벽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외피이자 조명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해달라.
상영관 안의 사운드 시스템을 다룰 때 우리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는 스피커나 연기 감지기 같은 시설을 모두 정원용 호스 뒤로 완벽하게 감추길 바랐는데 많은 음향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음향을 효과적으로 살리려면 정원용 호스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와 달리 결과적으로 음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영화 감독을 초대해 몇 차례 테스트를 거치기도 했는데 그는 우리에게 “이곳은 매우 매혹적인 영화관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상영관을 통틀어 가장 마법 같은 소리가 흘러나온다”라고 말해줬다. 영화관의 메인 홀을 디자인할 때도 진통을 겪었다. 영화관 내부 조명 간격이 균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규제가 공간의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라고 생각해 고집스럽게 우리 입장장을 고수했다. 처음에는 법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이들도 조명을 켜는 순간 우리의 말을 이해하더라. 프로젝트 기간 중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